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삶과 죽음 재조명

2019 소망 컨퍼런스 6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지난 12일, 플러턴 소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여러분 죽음 준비하셨습니까?’란 주제로 2019 소망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컨퍼런스는 치매 예방부터 시신 기증, 장례 준비, 은퇴 준비 및 유산 상속 등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컨퍼런스는 죽음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며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2019 소망 컨퍼런스

죽음 전문 강사로 활약하는 유경 사회복지사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란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 아름다운 삶이 이어져 죽음의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그 병원의 통증 완화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빈센트 뉴엔 박사는 ‘심각한 질병에도 잘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이란 주제를 통해 말기 질병에 직면했을 때, 평안한 삶의 마무리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다가올 죽음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 완화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에만 치중하지 말고, 치유와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에 집중하자”라고 조언했다.

그 외에도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UCI MIND의 말콤 디 박사의 알츠

하이머로부터 건강한 ‘뇌 지키기’, 오코너 장의사 백기 부장의 ‘장례 준비’, 소망 소사이어티 샌디에고 지부 박혜수 교문의 ‘죽음 준비 교육’, 아주사대 전혜정 교수의 ‘호스피스 워크샵’, 미 보훈국 김에린 사회복지사의 ‘치매 간병인의 자신 돌보기’, 유경 사회복지사의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나’, UCI 시신 기증 프로그램 마크 부룩스 부장의

‘시신기증’, 한 앤 박 법률사무소 박유진 변호사의 ‘은퇴준비 및 유산 상속’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된 워크샵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로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27개의 관련 업체가 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에게 관련된 필요 정보를 제공했다.

김동욱 기자



2019 미주성결교회 3040목회자 세미나

‘2019 미주성결교회 3040목회자 세미나’가 미주성결총회본부의 주

최로 지난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미주 성결교회 3040, 이민교회를 품다

젊은 목회자를 위한 공감과 감동의 자리 마련

‘성결교회3040, 이민교회를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3박4일간 애틀랜타 섬기는교회(담임 안선홍 목사)를 비롯해 잔스크리한인교회(담임 이경원 목사), 애틀랜타벤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에서 이어졌다. 이를 위

해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안선홍 목사, 황영송 목사, 이경원 목사, 이해진 목사, 김신일 목사 등이 지난 4월부터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다.

총회 역사상 최초로 마련된 3040 목회자 세미나는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배우고 격려하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또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치유 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건강

한 목회자로 함께 세워지는 시간이 됐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 강의는 △이민교회 정체성과 목회(LA 유니온교회 김신일 목사) △이민교회 회중과 설교(안선홍 목사) △이민교회 현실과 다음 세대(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 △이민교회 상황과 영성(이경원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앤더슨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에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번호 : 122043958
 아카운 번호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GLOBAL WORSHIP CONFERENCE 2019 in LA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

세계적인 예배와 찬양 강사 **탐 크라우터 (Tom Kraeuter)** 초청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10월 26일 (토)
 9am-4pm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949-854-4010

주최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 (Global Worship Ministry)**
 주관 **베델교회**
 후원 **월드미션대학교**
 대상 **목회자,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

등록 선착순 150명
 등록비 \$ 80 (강의안, 식사제공)
 문의 714) 337-4532
 wlm@hanmail.net
 facebook.com/lglobalworship

제6회 라크마 음악 장학생 모집 3명에게 총 6천 달러 지급

신청 마감 오는 11월 3일, 라크마 협연 기회도 주어



라크마 윤임상 음악감독



2017년 라크마 장학생 시상식 사진

라크마(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 Association: 이사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음악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책정하고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며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혹은 지원자들이다. 장학금은 심사 후 3명에게 각각 \$3000 (1등), \$2000

(2등), \$1000 (3등)이 수여된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오는 12월 8일(주일) LAKMA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콘서트에서 협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장학생 신청은 문의처를 통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11월 3일(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

워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라크마와 협연의 기회를 주어 더 큰 도약의 발판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매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많은 음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생 신청 문의는 이메일 lakma.scholarship@gmail.com 전화 213) 239-3573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가을 정취 가득한 북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제3회 미주장신대 북 콘서트
오는 11월 13일(수)

주제로 책을 소개한다.

서평은 풀러신학교 신약학 신웅길 교수와 미주장신대 신약학 박일서 교수가 맡았으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설교학 김남중 교수가 전체 서평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북콘서트는 책 소개와 서평 외에도 노영주 전도사와 김요셉 전도사가 비올라와 기타가 어우러진 <10월 어느 멋진 날에> 연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북 콘서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 올바른 설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562) 926-1023

정은진 기자

미주장신대교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는 오는 11월 13일(수) 오전 11시 40분, 미주장신대교신학대학교 채플실(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에서 책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를 가지고 제3회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미주 장신 조직신학 박동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북콘서트는 이상명 총장과 총현선교회 민종기 목사, 로렐장교회 박일룡 목사, 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가 각각 「요한계시록 개론」, 「요한계시록의 정치윤리」, 「요한계시록과 설교」를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쉼터 'LA GCC' 건립 위한 제2회 자선 음악회 열린다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 대표 김미선 교수

드림투드림 (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이호준 박사의 오르간 솔로를 비롯해 그레이스 홍의 하프 소터는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교통과 선교의 중심지인 엘에이에 머무는 동안 영육간의 회복과 사역을 나눌 장소"라며 LA GCC 건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미선 대표는 이어 "GCC는 초교파로 운영하며 온 삶을 드러 헌신하는 현장 선교사들은 누구든지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콘서트 및 GCC 건립 후원 문의는 이메일 : genesismusic2000@gmail.com, 213-369-3861(USA) 010-2638-5127(Korea) Kakao Talk ID : pilgrim01 으로 할 수 있으며, 미국 내 후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쉼터로 사용될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 (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수, 이하 GCC) 건립을 위한 제2회 자선 음악회가 오는 11월 3일(주일) 오후 4시, 놀스릿지 연합감리교회(9650 Reseda Blvd, Northridge, CA 91324)에서 열린다.

로, 테너 피터 전, 소프라노 제이미 김의 연주, 권대술의 바이올린 솔로, 크리스티나 천의 마림바 연주, 벨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합창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1회 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출연진 모두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김미선 대표는 "글로리 선교센



멕시코 블라(Beulah) 공동체를 방문한 이상훈 목사(왼쪽) 관련기사 4면 '이상훈 목사의 선교칼럼'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1-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3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남가주 한인 목사회 제53차 정기총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프린스톤바이블대학교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20

등록비: \$20(필수)

문의: 총무 강태광 목사 (323.578.7933)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공천공고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공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이력서, 교단 소속 증명서, 연방정부의 비영리 단체 등록 교회 증명서, 안수 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상회가 발행하는 현 교회 시무 확인서 각 1통씩, 30인 이상 회원 추천인 명단(목회를 하고 있는 시무 목사).

▶공천금 없음. 회장과 수석 부회장 동일함.

입후보 제출 서류 마감

2019년 11월 4일 오후 5시 (우체국 직인 기준)

제출 주소: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20

회장: 김관진 목사 (213.321.6019)
총무: 강태광 목사 (323.578.7933)
E-mail: chap1207@hotmail.com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교회와 성도여,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
세계적 예배사역자 탐 클라우드 초청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오는 10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알바인 베델교회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가 주최하고 월드미션대학교가 후원하는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가 오는 10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알바인 소재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에서 열린다.

특히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는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를 대상으로 세계적 예배 사역자 탐 클라우드(Tom Krauter)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더욱 눈길을 끈다.

탐 클라우더는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를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예배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강의외에도 질의응답을 통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땅에

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를 소개하며 올바른 예배 회복을 강의할 예정이다.

탐 클라우더는 “회중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손에 훈련된 예배인도자”,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 기초”,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처음처럼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 “효과적인 찬양 사역”, “50인의 예배 인도자”, “워십리더 핸드북” 등 예배자와 예배인도자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교회와 예배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성경적인 예배와 참된 예배자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목적의 예배 전문 훈련 사역 기관인 “트레이닝 리소스(www.



예배사역자 탐 클라우드 ©트레이닝 리소스

training-resources.org)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바른 예배와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는 “매년 예배와 찬양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교회의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와 찬양의 현상이 되고, 성경적 예배 이론과 함께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예배의 성경적인 원리와 예배 신학, 예배의 현장과 실제적인 찬양사역, 다음 세대의 미래 예배 등을 위한 올바른 예배 갱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는 이어 “올해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는 세계적인 예배 전문가 사역자인 탐 클라우드로부터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참된 예배자’, ‘예배와 찬양 사역자의 준비와 자세’ 등 지역 교회 예배 찬양사역자, 인도자, 세션, 예배자를 위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듣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 예배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예배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2019 in LA는 탐 클라우드의 강의와 함께, 그의 신간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사인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 문의는 전화 714) 337-4532, 이메일 wlm@hanmail.net으로 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개인 80달러, 10인 이상 단체 70달러, 20인 이상 단체는 60달러다. 강의안과 식사가 제공된다.

김동욱 기자

[1면 “미주 성결교회 3040, 이민교회를 품다” 이어]



2019 미주성결교회 3040목회자 세미나

매일 저녁은 ‘나의 목회 이야기’로 솔직 담백한 이민목회의 경험을 나누고,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3040 운동회와 3040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세미나를 마친 참가자들은 “회복의 시간이었다”며 호평했다. 주

요 소감으로는 “투명하고 솔직할 수 있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감과 감동의 자리였기에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은혜롭고 많은 분들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함께 그 길을 걷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 “이 길을 혼자 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다음에는 사모님들

과도 이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3040 세미나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젊은 목회자들은 그 동안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이었으나, 세미나를 통해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동안의 방어적이고 건조한 회의 진행 중심이었던 총회가 사중복음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알리는 고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등의 소감들이 발표됐다.

김용배 총회장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부흥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는 동역자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혁을 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며 “모두 소중한 우리의 형제들이며 가족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회장은 “임기동안 운영위원 및 후원위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교단의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사역을 하기 원한다”며 “이번에 섬겨주신 애틀랜타 교회들과 목사들에게 감사하며, 바쁘고 힘든 사역 가운데 참석해 주신 3040 목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의 포옹을 나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다.

미주 동포사회, 고국 발전과 희망의 밑거름 돼야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 10월 정기모임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KVMCF SC 회장 김회창)는 지난 12일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양준용 박사는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된 고국의 현실과 조선 말기 현상을 대비하며, 한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사를 통해 조명했다.

양준용 박사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개혁 관료 김홍집이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제시한 책 ‘조선책략’에 따르면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해 조선은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함으로 조선을 혁신해 주변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외교전략을 제시했지만 불행히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망국이 됐다”며 “오늘의 한국 역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미국, 일본과 연대해 자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김회창 박사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소수’로 미주의 동포들을 사용하실 줄 믿는다”며 “고국의 발전과 희망의 밑거름이 되는 미주 동포 사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해군 제독 출신 원태어 장로의 사회로 미주 원로 장로회장 김정명 장로가 기도에 이어 3.1 미주 여성 동지회가 특송했다. 이어 벨리기도 교교회협의회 회장인 김선일 목사가 ‘기독교인의 윤리’로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는 오는 11월 9일(토) 오전 11시, LA 말샘새로운교회에서(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과 기독교정신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213-268-9367 정은진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1

“뿔라(Beulah) 공동체와 의의 나무 사역(1)”

샌디에고를 거쳐 티화나 국경을 통해 들어가면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가 시작된다. 멕시코 지도를 보면 본토에서 갈라져 코끼리 코같이 기다랗게 뻗어있는 땅이다. 그 땅만도 우리 한국 땅보다 큰 면적이다. 티화나에서 맨 끝 지역인 델카보지역까지 차로 20시간을 달려야 하니 얼마나 큰 땅인가!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주에 엔세나다에서 2시간가량 내려가면 만나는 폰타 콜로넷(Punta Colonet) 지역에서 사역하는 뿔라공동체(이주혁신교사)를 방문하였다.

엔세나다 선교지는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다녀오나 뿔라공동체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약 20여 년 전 정탐 여행으로 최남단까지 다녀오면서 이 지역 들까지 선교사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현재는 최남단까지 미국 선교단체 뿐 아니라 한인 선교사들도 여러 분 사역하고 있다. 가는 길에 예수전도단(YWAM) 선교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뿔라라는 말은 이사가 62장 4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결혼한 여인”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뜻이다.

수없이 산을 넘고 들어가는 그 시골 깊숙한 콜로넷 마을은 포장된 길도 없고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도 많았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결혼가정을 섬기려고 약 7년 전 뿔라공동체가 세워졌다.

긴 이야기지만 짧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겠다.

약 10년 전 엘에이 다운타운 지역에 흠리스를 섬기는 단체인 ‘오병이어’가 세워졌다. 이준 목사가 대표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5천 명 먹이는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응답받았다 한다. 받은 그대로 5천 명 먹일 음식 공급처를 찾다가 하나님은 헤로 “Trader Joe”와 한국 회사의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본격적인 오병이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콜링으로 사역을 남미 열방으로 넓히려는 음성을 듣고 엘에이에는 “아버지 창고(Father's warehouse)”를 세우고

전담 스텝들을 두고 이준 목사 내외는 멕시코 콜로넷을 찾았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개발되지 않은 불모의 산간 지역을 하나님께서 신 땅으로 믿고 맨 삽으로 그 땅을 개간하였다 한다. 그 땅을 멕시코의 선교센터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중 120 에이커의 엄청난 땅을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한다. 기적이었다.

이준 목사는 3년여간 그 땅을 개척하며 엘에이 아버지 창고에서 공급하는 음식으로 콜로넷 지역 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뿔라 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직접 후원비가 모아지면 선교관을 지었고, 숙소를 지었고, 제2 선교관 그리고 현재는 교육관을 지을 예정이다.

이준 목사는 그렇게 3년간 그곳 사역을 하며 기초를 마련했고, 동역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약 3년 전 그곳을 동역자에게 인계하고, 두 부부는 남미 브라질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는 “의의 나무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곳 사역은 도시에서 “커피 샵”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빵을 굽고, 커피를 만들어 팔며 그 수익으로 빈민촌 영혼들을 섬기었다. 그곳에도 그의 사역 비전에 함께 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에게 인계하고 이 목사 내외는 현재 볼리비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의 새로운 영혼구원 개척사역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남미에서 가장 어렵다는 베네수엘라의 “의의 나무 사역”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놀라운 선교 리더십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 주시면서 사역 확장의 은혜를 주셨다. 다시 멕시코 뿔라공동체 이야기를 하겠다. 현재는 약 9개월 전 부임한 이주혁 선교사 부부가 맡고 있다. (계속)

행복 만들기(4) 행복하려면 칭찬하세요!!

행복하려면 가까운 이웃을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칭찬하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칭찬을 실천하는 삶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삶입니다. 행복하려면 칭찬하기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유익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커다란 고래가 그 어려운 재주를 해 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고래가 훈련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실수를 눈감아 주고 잘할 때마다 칭찬을 하고 고래가 좋아하는 먹이를 상급으로 줍니다. 이런 칭찬과 보상은 고래를 훈련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고래들이 그 어려운 재주들을 능수능란하게 숙달하게 합니다. 칭찬의 힘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서거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대통령 양복 주머니를 뒤졌는데 손수건, 그리고 다 헤어진 신문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 조각에는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고 그를 칭찬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의 반대 세력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의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며 폄하할 때마다, 여러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외로울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신문 조각을 펼쳐 보며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같이 큰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나를 바꾼 한 마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각

자의 인생을 바꾸게 한 말을 수 없는 한 마디의 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꾼 대부분의 말들이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 칭찬들은 주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잘할 때 받은 칭찬도 유익하지만 부족할 때 보내준 칭찬과 격려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들이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고, 그 여인상을 마치 아내처럼 온갖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자, 아프로디테 여신이 감동하여 여인상에 생명을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조각상이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젠탈 효과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칭찬하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1968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과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레노어 제이콥슨이 실시한 실험의 결과로 얻은 이론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실험을 주도한 로젠탈 교수의 이름을 따라 명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던 실험인데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둘째, 한 반에서 20% 정도의 아이들을 지능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뽑습니다. 셋째, 그 아이들과 교사에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믿게 합니다. (무작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모두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8개월 뒤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개월 후 지능검사 결과 관심과 칭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믿은 20%의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긍정적인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노력하였고 그 칭찬과 기대 때문에 아이들은 팔목할 만한 진보를 가져왔다는 보고입니다.

칭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칭찬하면 스스로 행복합니다. 칭찬하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행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비단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칭찬하는 마음과 입술에서 행복이 자랍니다.

바로 지금 만나는 이웃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 보세요! 행복의 향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RSVP for Open House
November 7th @ 7pm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인터뷰]코렛스키 만치니 펠드맨 앤 모로 로펌 데이빗 리 변호사

교회와 크리스천의 대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은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정화를 이끌어 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본지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편집자 주-

데이빗 리 변호사(35)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이 되던 1984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LA 한인타운에 교회를 개척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LA를 떠나지 않았다. 펠리세이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트리니티 로스쿨을 마치고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코렛스키 만치니 펠드맨 앤 모로(KOLETSKY, MANCINI, FELDMAN & MORROW www.kmf.com) 로펌에서 누나인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를 소개한 웹사이트에는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드러내며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 자비와 겸손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의 울퉁한 믿음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밝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다 해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변호사 이전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비즈니스, 상법, 고용법, 자동차 사고, 개인 상해, 레몬법 등 다양한 케이스를 다룬다. 대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를 변호하고 돕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큐티(QT)를 하며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도한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선택한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붙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한 데이빗 리 변호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



LA 코리아 타운에 소재한 코렛스키 만치니 펠드맨 앤 모로 로펌에서 소속 데이빗 리 변호사는 성경의 권위아래 법을 준수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을 미친 사람은 아버지 이모세 목사(월드타운교회)다.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던 청소년 시절,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리석어 보였다. 교회는 대부분 집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마약과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로 북적이었다.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이들을 먹이고 재우며, 그들과 함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금요일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 교회 재정은 늘 부족했어요. 다른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부지를 확장할 때, 아버지는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세를 삶으로 보여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지요.”

신앙이 철이 들면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은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임을 깨닫게 됐다.

“중학교 시절,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를 마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에 타보니 햄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고 학교를 마쳤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졌을까? 그때 차에는 교회에서 돌봐주

던 아저씨가 한 분 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들인 제게 햄버거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햄버거를 아저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는 세상의 아버지도 있고, 하늘나라 아버지도 있지만, 그분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분에게 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들보다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신앙은 제게 큰 깨달음과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노숙자, 마약 중독자, 거리의 부랑자로 교회를 찾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많은 이들은 직업을 얻고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도 함께 변화됐다. 변화의 가능성 없이 이들에게 쏟아붓기만 하는 듯 보였던 크리스천의 삶에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던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

“삶에 지친 이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변화로 인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은 비난받기 이전에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변

화로 일하며 힘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데이빗 리 변호사에게도 신앙의 위기는 있었다. 아버지의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적었기에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다. 삶의 가치관이 확립될 무렵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손을 내밀었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친구들로부터 무조건 도망치지 않았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자 UCLA 철학과에 입학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그들과 같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다.

방황하던 청년은 세상이 결국은 허무임을 발견했다. 세상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저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리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한 것은 트리니티 로스쿨에 입학하면서부터다.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산하에 있는 트리니티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미국을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법조계 인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모델로 삼으며 먼저는 크리스천이고 두 번째가 변호사라는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었다.

“로스쿨 교수님들은 미국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사람의 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법을 반대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한다는 데이빗 리 변호사는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크리스천 리걸 소사이어티(Christian Legal Society) 멤버로 활동하며 미국의 세속화에 저항하고 성경적 사회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신앙승리의 기대

신명기 7:12-2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지경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같은 상황을 보고 듣고 돌아온 그들의 느낌이 10대 2로 서로 상반대는 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믿음이 일치하지 못했음을 나타냈습니다. 12지파중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소망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3:30에서 갈렘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했고, 민수기 14:8-9에서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중략)…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명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 자손을 보았”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인 보고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에 여호수아와 갈렘 지파마저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연기되는 불행을 낳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양기간의 인연으로 만나 영적인 소망을 가꾸자고 함께 애써왔는데 그동안 선포되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를 얻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서 생활전쪽으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벌써 신령한 은혜에 젖어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녔다는 것은 자랑하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보장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은 자가 당착(自家撞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감으로 애써 당부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조건에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중략)… 그 애급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단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예비되어 있으나 이 모든 조건은 아직도 지체되고 있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셨다는 사실과 오늘의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이면 내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오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 하

게되지만, 행동은 본질적으로 인간 자기인생을 세상조건에 편승하여 육신의 혈기와 정욕에 치우치는 폐단은 예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합니다. 생각으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불신을 나타내는 폐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엮어 사는 행동의 범주를 관찰하시어서 행위의 열매로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신명기 7:1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했습니다.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역사해 오신바 그 뜻은 변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처럼 확약(確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열 명의 보고자에 의하면 그들의 정탐결과는 불가능하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은 참으로 많은 심령들에게 어둠으로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급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중략)…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합니다(민14:1-3).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시는 과정에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애급을 벗어나게 하시고 황무지였던 가나안을 다른 족속들로 하여금 갈고 닦게 만드셨고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2:26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중략)…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 들어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위로하심으로 격려하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조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것들이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 물리적인 조건의 현실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애급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 애급의 악질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은 것과 같이 좋은 것은 이스라

엘에게, 나쁜 것은 원수의 몫으로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격으로 갖추어지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뜻을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급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 하되 …(중략)…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회개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쓰는 진실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책임지고 구원을 보장하시며 앞길을 열어 인도하시되 어떤 장애물도 없애주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믿어지는 믿음’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욕심과 정욕대로 살다가 괴로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명령 하는듯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는 말씀은 급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되어 그 넓은 곳을 이스라엘이 관리하기 어려워져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게 될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같이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중략)…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중략)…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신7:2-5)”는 말씀으로 보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까 우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으로 그들의 이방신 앞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속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시는 이유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8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중략)…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신7:9-11)”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COLUMBUS DAY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美 보수주의자들, 트럼프 탄핵보다 시리아 사태 더 우려”



토니 퍼킨스 회장.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가정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

미국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대통령 탄핵 과정을 ‘정치쇼’로 여기고 있으며, 시리아의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미 보수진영 유권자 모임 ‘밸류스 보터 서밋’(Values Voter Summit)이 열린 옴니 쇼렘(Omni Shoreham) 호텔에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진 퍼킨스 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과정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외에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상원도 탄핵을 계속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킨스 회장은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과 유권자들은 이를 정치쇼로 보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시리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적인 거리가 생긴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지금까지 시리아 북부에서 종교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다양한 소수 종교 단체들이 최근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종교적 관용의 노력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고,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소수 종교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

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보수주의의 운동과 관련, 퍼킨스 회장은 “결국 미국의 보수주의의 운동은, 늘어나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의 검열과 우익의 사상 및 개인에 대한 탄압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느낀다”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이슈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할 여지는 갖고 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논쟁을 원하지 않으며, 토론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는 모든 반대는 침묵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주의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느렸지만,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은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며, 앞으로 승리로 가게 될 무엇인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기가 변화되는 이 때, 우리는 다음을 처벌하고 다음에 침묵하는 이러한 좌파적 개념을 더 많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성적 이데올로기와 얽혀있으며,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이 논쟁과 더불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밸류스 보터 서밋은 일년에 한 번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보수 정치인 및 운동가들의 모임으로 FRC의 법률 부문인 FRC 액션(FRC Action)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열렸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략 3,000명 가량이 참석했다.

2017년 이 모임의 연설을 맡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모임에도 참석해 종교의 자유, 탄핵 과정, 브렛 캐버니 대법관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해진 기자

‘예수 운동화’ 버전 나이키 에어 맥스?



©MSCHF

미국서 화제... 고가에서 출시 몇 분 만에 매진

미국에서 성경구절이 적힌 ‘예수 운동화’(Jesus Shoes)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스튜디오 미스치프(MSCHF)가 나이키 ‘하이 트 에어 맥스 97s’를 재해석한 운동화를 선보였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구현해 낸 이 운동화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출시 몇 분 만에 매진됐다고 한다.

신발의 가격은 1,425달러(약 170만 원)이며 20컬러 한정판으로 가격이 최소 4,0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신발 옆면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뜻하는 ‘MT. 14:25’이 적혀 있으며, 에어 속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에서 공수해 온 성수가 들어있다. 이를 시각적으로 돌보이게 하기 위해 하늘색

컬러를 입혔다.

신발 끈 부분에는 십자가 위의 예수상이 달려 있으며, 운동화 발등 부분인 섀포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 물방울 무늬가 그려져 있다.

또 100% 울로 제작된 안창은 ‘하나님의 양’을 뜻하며 유행도 머금고 있다고 한다. 유행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3가지 선물 중 하나이다. 안창의 빨간색으로 전통적으로 교황이 신는 빨간 신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운동화 제작을 맡은 다니엘 그린버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애리조나 아이스티와 아디다스의 콜라보를 생각했다. 그들은 음료회사를 광고하는 신발을 팔았다. 오늘날 콜라보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콜라보는 어떻게 생각했다. 유대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치프 설립자 가브리엘 웨일리는 “예수 운동화의 재출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교회신문교회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회침례 순경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323) 833-909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확립하며, 이인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ilen 교차) T. (213)386-2233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옆 위치)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323) 634-9191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신타모니카한인교회 축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아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 6:3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주간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363-5887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하나님의 사람’ 머리띠 써 벌금 부과된 NFL 선수, 항소심 승리



드마리오 데이비스 선수. ©뉴올리언즈 세인츠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혐의로 약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미국 프로미식축구연맹(NFL) 선수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시애틀 시흐스와의 경기에 나선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주장 드마리오 데이비스(Demario Davis) 선수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방금 나의 법적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이겼고, 머리띠 착용 관련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는 글을 올렸다.

데이비스는 앞서 벌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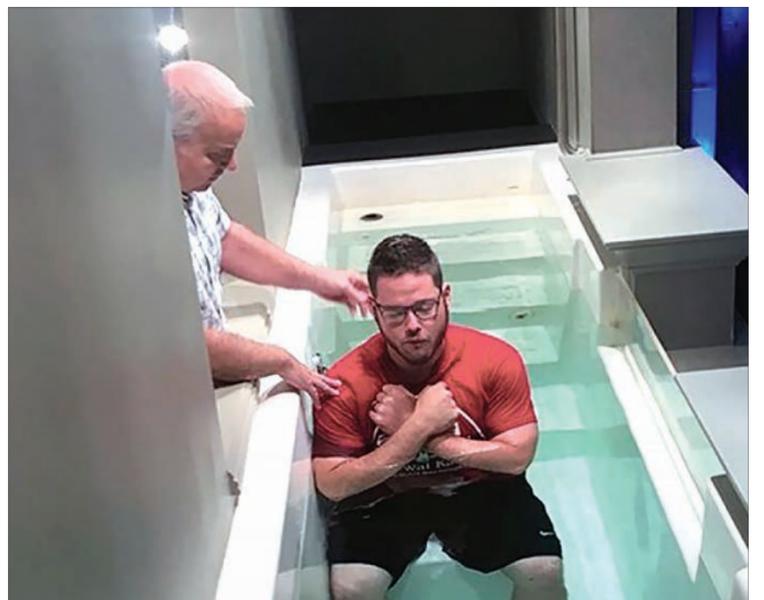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힌 머리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리띠는 색상은 금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으며 가격은 하나에 25달러이다. 그는 판매 수익의 전부를 미시시피 잭슨에 위치한 도미니 병원(Dominic Hospital)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현지언론 The Times-Picayune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때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머리띠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관중이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침입해 약 1억 원 재산 피해 낸 男, 회개 후 세례 받아



브렌트 윈이 아칸소 주에 위치한 중앙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 ©바티스트프레스

미국 알래스카에 소재한 교회를 부수고 침입해 10만 달러(약 1억 1,900만 원) 어치의 재산 피해를 낸 마약 중독자가 회개하고 6개월 만에 같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주인공은 올해 23세인 브렌트 윈(Brent Winn)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아칸소 주 콘웨이에 위치한 중앙침례교회(Central Baptist Church)에 침입해 노트북, 카메라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 또 휴게실 벽에는 인종차별적인 문구를 적어놓고, 가족 센터에 불을 질렀다.

당시 돈 찬들러(Don Chandler) 담임목사는 KTHV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약탈과 방화였다”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워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숙자에 필로폰 중독자였던 윈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재발하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의 행동은 교회 내부에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며칠 후 당국에 붙잡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윈은 강도를 비롯해 다양한 혐의를 받았으나, 찬들러 목사는 검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는 길을 택했다.

찬들러 목사는 바티스트프레스와의 인

터뷰에서 “우리가 그에게 어떤 은혜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말하고 격려해 온 모든 것들이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다. 이는 그냥 해야 할 일이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고, 그는 실수가 많은 젊은 청년이었다. 또 범죄 당시 술과 마약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 만했다”고 전했다.

판사는 윈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었다고 한다. 하나는 교도소에서 20년 징역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개월 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는 바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약물 중독 때문에 괴로웠다. 나의 삶에는 혼돈, 자살 시도, 깨어짐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자신이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부숴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다른 교회에 갔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난 교회를 부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9일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 시리아 북부 지역의 모습.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터키 공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

미국의 소리(VOA), 지역 소식통 인용해 보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이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지난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카미실리(Qamishli)를 목표로 삼았다. 이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많은 곳이다.

VOA는 “11일 카미실리 인근 콤파이아 시에 위치한 성모마리아교회(Virgin Lady Church)가 터키의 포격을 받아 건물의 일부가 붕괴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한 기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들이 시리아 북부에 있다. 가족들과 기독교인 친척들은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면서 “터키의 공격은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카미실리에 있는 교회들과 시리아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터키의 군사작전의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리고 있다”며 “나의 동성 기독교인 친구들, 학우들이 IS에 납치됐었다. 그러나 만약 터키가 우리의 지역을 침공한다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은 더욱 두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기독교와 아디지족 여성과 소녀들 수천 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성노예가 되었다.

터키의 지원을 받으며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반군들 역시 시리아의 여러 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학대를 벌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켜 터키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보수 기독교인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방송 ‘더 700 클럽’(The 700 Club)을 진행중인 로버트슨 목사는 “미국이 시리아 북부의 민주군을 배신하려는 행위가 끔찍하게 소름끼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터키가 쿠르드에 대항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자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가족연구위원회(FRC) 트레비스 웨버(Travis Weber) 부회장은 “시리아 북부를 터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미국에 유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북부에서 벌어지는 터키의 군사작전은 미국의 동맹인 쿠르드군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르는 소수 종교인들의 죽음과 이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진 기자

美 하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



14일 홍콩의 시위대들은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화면 캡처

“상원에서조차 당적 지지 받고 있어”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상원 모두 홍콩 시민 편에 섰다.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홍콩 인권법안은 이제 미 상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상원에서조차 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표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은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 의원들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의 결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충격적인 모순을 보여주었고 있다”며 “홍콩의 변명과 안정을 저해해 중국의 발전까지 막으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대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예배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딛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T.O.T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Y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2: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동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주동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족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의 열매를 실리는 제자공동체 ALL IN JESUS 화세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에배 성령 성령 보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주동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A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목요일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생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w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매월 둘째-금)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30 (매월 둘째-금)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김인철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임경남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새문안교회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하라”



이상학 목사가 총회 직후 수습안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과 관련,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 당회는 13일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속된 상회인 서울노회에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조지교회로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린다.

당회 측은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화합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하나, 이 수습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의 문제점을 밝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한다”며 “이를 계기로

거룩함과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전했다.

결의사항은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수습안이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수습 방안 마련과 이면에 손상된 한국교회의 공의와 거룩함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과 협력한다 △새문안교회는 교회 세습 등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배격하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및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등이다.

또 노회 청원 공문에서는 “이번 수습안 제안과 의결 과정은 교회 헌법과 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초법적 결정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인들, 다양성의 상징 되어야”

영 콥트교 대주교, 콥트력 신년 축하 연설

영국 콥트교 양가엘로스(Angeolos) 대주교는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세계가 ‘거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양성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양가엘로스 대주교는 10일 콥트력으로 신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마가렛교회(St Margaret’s Church),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등지에서 약 4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양가엘로스 대주교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많은 혼란에 직면해왔다”면서 “우리 안에서 뿐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부분이 거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오늘 밤 우리가 교회, 신앙, 믿음, 공동체의 범주를 넘어 함께 모여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된 신앙의 여정과 관계성,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 다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다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이들과 화해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제 때,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수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콥트력이 시작되었다. 양가엘로스 대주교, 콥트정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도전과 놀라운 자비, 인내, 저항, 용서 등을 직면해오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에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타렉 압델(Tarek Adel) 주영국 이집트 대사는 “최근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는 이집트는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변명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 왔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와 조화를 강조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공존은 모든 발전된 사회를 이끄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신앙의자유 특별대사(Special Envoy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였던 워블던의 아흐마드경(Lord Ahmad of Wimbledon)은 “전 세계의 이타적인 이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싶다. 이들은 종교자유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위한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했다.



양가엘로스 대주교.

양가엘로스 대주교는 “디오클레시안 강해진 기자

홍콩 시위대, 사자산 정상에 ‘자유의 여신상’ 설치



홍콩 자유의 여신상 모습. ©Bloomberg TicToc 영상 캡처 홍콩의 랜드마크인 사자산 정상에 ‘자유의 여신상’이 설치됐다. 홍콩 시위대가 설치한 ‘자유의 여신상’은 홍콩 시위 당시 한쪽 눈에 경찰의 총을 맞아 실명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여신상은 방독면과 고글을 착용했으며, 한 손에는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다른 손에는 홍콩의 민주화 혁명인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있다.

김하나 목사 최소 15개월 교회 떠나야...수습안은 징계 성격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했다.

이는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는 등 수습안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새문안교회 등 일선 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철회 청원이 발표되는 등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신에서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양측을 향해 "총회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라"며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라"고 전했다.

또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모이게 된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총회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해 달라"고 했다.

명성교회를 향해서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 총회재판관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하던 모습.

예장 통합 김태영 총회장,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긴급 권고서신 김하나 목사 위임 취소, 최소 15개월 교회 떠나야

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진명성 측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해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 측은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 정상화에 힘쓰기 바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라"고 했다.

총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68개 노회에게는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달라"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기회가 교단 분열을 넘어 하나 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라고 간청했다.

김진영 기자

정주채 목사 "조국, 열 번도 더 낙마할 사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와대



정주채 목사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정치는 상식이다. 국민들은 대개 정치적 문제를 상식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상식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는 열 번도 더 낙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목사는 27일 '광기 어린 세상을 본다'라는 제목의 '코람데오닷컴' 칼럼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러나 그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당당하다. 본인은 또 그렇다 치자. 주위에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칼럼에서 "나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크나큰 의문을 가져왔다. 그것은 '어떻게 모든 인민들이 유례가 없는 독재 정권에도 기꺼이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라며 "여기에 대한 제일 쉬운 대답은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목사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답이 안 되는 실제 상황들이 있다. 단순히 두려워서 거짓으로 충성하는 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 인민들의 대부분이 진심으로 김일성 일

가를 존중하고 신처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보며 '광기'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인간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한결 같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요즘 나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목사는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같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돼 버린 것일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나의 눈도 비틀어진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 했다.

김진영 기자

이형규 쿠팡출판사 대표, '책의 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1987년 쿠팡출판사 설립, 총 3,700여 종 도서 출간

쿠팡출판사 이형규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3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형규 대표는 "출판인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판계를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고려대장경 완성일(1251년 10월 11일)을 기념해 1987년 제정한 '책의 날'에는 출판문화 조성에 기여한 출판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정부 포상과 표창 대상 중 기독교 출판인으로는 대통령 표창에 쿠팡출판사 대표 이형규 장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 대한 기독교서회 대표 서진한 목사와 기

독교문서선교회(CLC) 대표 박영호 목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쿠팡출판사 이형규 대표는 1987년 쿠팡출판사를 설립하여 연간 120여 종을 출간, 지금까지 총 3,700여 종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그 동안 종교(기독교) 분야에서 양서를 보급하여 바른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국내 저자들을 발굴하여 번역서 의존도가 높았던 기독교 출판문화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이형규 대표는 제18회 책의날 문화부장관상(2004년), 제22회 책의날 국무총리 표창(2008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법무부장관상(2018년)에 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형규 대표.

어 기독교 출판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노력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대웅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왔을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전자일까? •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yk@gmail.com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총회권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김학성: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818)913-3115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 (진리의길) 앎,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2020년 11월 1일

등록상담전화 212-224-220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섭섭함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로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상대에게서 그것들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원하는 만큼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학생은 선생님께서부터 관심과 칭찬을 듣지 못할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노력과 수고,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교인들은 수년간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나 인정해주시는 커녕 도리어 판단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에 섭섭해집니다.

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함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정서를 저해합니다. 일단, 섭섭함을 느끼는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섭섭함을 느끼게 한 가해자는 모르는데, 당사자 혼자 속

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상대방은 섭섭함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당사자만 속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섭섭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도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섭섭함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섭섭케 하는 이유를 제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나는 절대로 칭찬 받지 않으리라 누가 섭섭한 소리를 해도 조금도 섭섭해 하거나 시험 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만 인정 받으리라" 다짐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섭섭함이라는 어두운 동굴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연습하고 단련해 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관심과 칭찬과 인정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계관 전쟁 속에 있습니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세계관학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도전 속에 있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80년대 중반 군복무 이후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학문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정치학이라는 분야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중에는 정치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몇 분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셨던 이흥구 교수님, 저의 지도교수가 되셨던 김홍우 교수님, 그리고 학위를 바로 마치고 들어오신 양승태 교수님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적 열망과 정치학의 가르침을 연결시켜 지도하신 분은 김홍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신 교수님은 '신앙을 핑계로 지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격려하시며, 폴 리코르(Paul Ricoeur)를 소개하셨습니다. 리코르는 신앙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소화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로 교수님과 세미나를 통한 무수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낱선 책들, 그것도 정치학, 철학, 인류학, 역사, 문학, 고전 등을 무차별적으로 읽는 훈련을 받으며, "폴 리코르의 국가론 연구"라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유학을 격려하시면서, 강의를 해보라고 정치학개론 강의를 맡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학내 환경은 김영환 씨를 중심으로 한 주사파 학생운동이 등장하면서 반미운동이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학교의 중앙도서관에서 분신 투신자살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류탄으로 매캐한 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없어, 김홍우 선생님은 야외극장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운동권 학생은 정치학과 대학원생 연구실 발코니에서 데모를 주동했는데, 던져진 최류탄이 연구실 내부에서 터져, 한동안 연구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학원생들이 쓴 절반의 논문은 마르크스 레닌은 물론이고, 신좌파 사상이 그림시, 알튀제, 루카치 그리고 모택동과 종속이론 등이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1989년, 사회주의 루마니아의 권력자 차우체스쿠가 사형 당하며 공산당 정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로 분열되고, 동구권은 종주국의 상실로 자유로운 나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나라들은 원조의 중단으로 빈곤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한 때 좌파 운동권의 로망이던 소련, 동독, 중공, 쿠바, 유고, 베네수엘라를 결코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모든 좌파사상이 퇴조한 것은 아닙니다. 탐욕적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항하여 생긴 마르크시즘은 실패한 계급투쟁 대신 문화적인 투쟁으로의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좌익은 비판(criticaltheory), 신좌파(New Left), 정치적 정도(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합니다. 세계관 전쟁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모국에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도의 분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갈라디아서 2:20)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이 시대 교회가 많은 것처럼 교회의 정의도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건물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나 성도는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시라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그분의 뜻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라도 부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회나 성도들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려고 힘써야 한다. 이와같이 교회는 우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인격과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 제자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중국교회 중에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교회들은 중국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지만 삼자교회 안에는 "복음의 열정"을 간직한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설교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관리 체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복음의 본질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자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강한 열망

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시켜 세워야 하는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의미"의 본질을 꿰뚫어 이해해야 한다.

물론 교회들 마다 헌신된 성도들을 점더 성숙한 신자로 양육하기 위해 "제자양육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정교하고 땀땀한 훈련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성도들이 큰 변화를 이루거나 성숙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곤 한다. 과연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많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

단시간에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삶의 전 영역과 인생의 전 여정'에 걸쳐 얼마나 성숙하게 양성해 가고 있을까? 혹시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교회다움의 과시요, 신앙적 승리'라는 잘못된 기준이 되어 교회의 양적 팽창에 헌신적인 일군들을 얼마나 단기간에 길러낼 수 있는지가 '목적'이 되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교회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고자 하는 결단과 열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 라고 정의해 볼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의 본질"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훈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할때가 많다.

이 시간 조용히 "내가 제자훈련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질문해 본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제자양육훈련을 위해 헌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이은태 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지음 / 2권 252면 / 13,000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6 전화 745-1007 쿼란출판사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1)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서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2019년은 츠빙글리의 개혁사상이 선포된지 오백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미 1984년에 츠빙글리 탄생 오백주년에 즈음해서, 그동안 잊혀진 그의 사상과 남다른 기여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츠빙글리의 여러 저서들이 영어로 새롭게 번역되었다. 최근에 종교개혁 오백주년 대회가 활발하게 개최되었고, 역사적 교훈들과 신학적 주적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루터의 95개 조항 선포를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오백주년 대회에서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이 재조명되었다. 2004년도에는 츠빙글리의 후계자 불링거 (1504-1575)의 탄생 오백주년을 맞이하여 전세계 신학계에서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검토하는 학술대회를 전개하였다. 2009년에는 역시 칼빈 탄생 오백주년 (1509-1564) 기념대회가 열린 제네바에서도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의존하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관점이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의 근거로 호소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개혁들 사이에는 성경에 대해서 다른 강조점들이 있고 차이점들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하려는 혁신적인 주장들을 제시할 때에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였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황제 직분자들의 권위와 결탁해 있었다. 거의 모든 성직자들은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다. 더구나 도덕적으로 비열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겸손하지 못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도, 로마 고위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죄와 부패함이 얼마나 큰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던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말았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성경을 연구한 자들만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로마 교회가 지탱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닥쳐온 위기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깨우친 종들이 증거하는 외침들은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과 악행들을 드러내는 것들이라서, 권세와 재물에 취해있던 자들에게는 방해물이라고 여겨질 뿐이었다.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는 천년동안 누적되어져 온 인간의 오만함과 실패,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의 선언이나 종교회의의 결정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간파하였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인용하고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된 초대교부들이나 신조들마저도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오직 성경의 최종권위와 그 절대 진리에만 의존할 것을 호소하였다. "오직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은 최고 권위에 대해서 호소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공식이었다.

1. 츠빙글리의 성경관

인문주의 신학문과 전통적 로마 가톨릭 신학을 받은 후, 츠빙글리 (1484-1531)는 루터와는 전혀 독립적으로 스위스에서 자신의 개혁신학을 제시하였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스위스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종교개혁자가 되었다. 츠빙글리가 루터의 글을 읽고 참고했지만, 그는 루터를 자신의 동료개혁자로 생각하였다. 츠빙글리가 루터로부터 깊은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훗날 츠빙글리는 자신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전혀 루터와 관련성을 갖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개혁신학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루터 역시 츠빙글리에 대해서 "다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취급하였다.

1)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운동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서 결정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그의 놀라운 종교개혁 사상들과 빛나는 기여들은 모두 다 그의 성경 해설과 설교 속에서 주어졌다. 그는 깊은 성경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도되어지는 감화를 받았다. 성경의 독특한 특

성과 기능에 대한 신념을 확실하게 터득한 츠빙글리는 전통이라는 허울로 혼란을 부채질 하던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였다. 츠빙글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의 주제들로서, 말씀과 성령에 의한 예배, 그리스도와 구원사역으로서의 미사절제, 성례와 상징적 인식, 용병제도의 철폐, 국가와 세속군주 등에 대해서 강조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전지역에서 가장 앞장서서 로마 교황청의 오류를 용감하게 지적했고, 미사의 철폐와 성상 제기를 위해서 투쟁하였다. 츠빙글리는 예배에서 말씀 강해를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개혁교회를 정착시켰고, 그러한 교회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병폐를 고치고 국가를 새롭게 정비하도록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황청을 위해서 전채터에 나가는 용병제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전통을 중시하고, 교황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행동하던 로마 가톨릭과 칸톤들은 츠빙글리 진영을 무찌르고자 군대를 파견하였기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사회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경에 대한 결정적인 이해와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츠빙글리는 어거스틴, 비텐바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았다. 비엔나와 바슬레에서 인문주의를 수학하는 동안에, 츠빙글리는 에라스무스와 만났었고 큰 영향을 받았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기독교철학을 발전시켰는데, 도덕적 윤리적 중생과 개혁에 희망을 가졌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사상적인 뿌리는 초대교부들 중에서 제롬과 오리겐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바,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다소 미약하다고 평가되어진다. 바젤 대학교에서 고전적인 스펀라주의 학자들과 일부 인문주의자들에게 수학한 츠빙글리는 철학적 체계로서 생활과 도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츠빙글리는 에라스무스가 펼쳤던 "그리스도의 철학"에서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교회에서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츠빙글리의 초기 사상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갱신은 에라스무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516년부터 글라루스 근처 아인제델른 교구에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유명해 강사가 되었다. 츠빙글리는 원어성경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과 철학을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에라스무스와 같은 박식



츠빙글리가 출생한 생가 빌트하우스 ©김재성 교수

함과 성경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 베르나르드 삼손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설교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츠빙글리는 1518년 취리히 대성당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기에 이르렀다.

1519년 1월 1일 (토요일)에 츠빙글리는 취리히 대성당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그 다음 날 주일부터는 로마 가톨릭의 절기에 따라서 전통적인 분문을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 개혁의 중심적인 본질이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있어서든지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성경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제시하였다. 성경적인 규범들을 생활에 적용하려는 츠빙글리의 설교는 로마 교회의 권위를 무작정 따라가던 흐름을 바꿔놓았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만 순종하여야 한다는 확신들을 갖게 되자 로마 교회와의 단절에 이르게 되었고, 복음적인 성찬예배가 미사를 대체하였다. 츠빙글리의 설교사역이 진행되면서,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졌다. 교황권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들은 모두 다 제거되었다. 면죄부 비판, 성인들과 성상숭배의 제거, 스펀라주의 신학비판, 용병제도의 철폐 등이 모두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1522년 이후로, 츠빙글리는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상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시의회가 승인하게될 교리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취리

히 종교개혁은 1523년 1월 29일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의되었으니, 성직자들에게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라고 명령했다. 츠빙글리의 개혁사상은 "67개 조항", 『신앙조항들의 해설』 (An Exposition of the Articles, 1523), 『간추린 기독교 입문』 (A Short Christian Introduction, 1523), 『잡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 1525), 『신앙의 고찰』 (An Account of Faith, 1530) 등의 저술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러한 저술들 가운데서 특히, 말씀과 성령에 대한 강조가 츠빙글리의 신학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강조되어져 있다.

츠빙글리의 성경해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을 강조했다. 이점에 대해서 루터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는 듯한 해석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츠빙글리를 비판하였다. 츠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무시해버린 성령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을 시도하려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루터가 츠빙글리를 비판하였다. 츠빙글리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게 각 개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분의 자유에 달려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사용해서서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며,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를 가까이 이끄신다."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깐!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동 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예배
 교회자료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11월

발보아 식물원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 당일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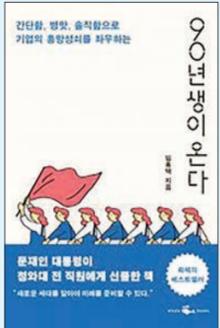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 213.434.1170
 Tel. 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요즘 것들?

90년생이 온다...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웨일북 | 336쪽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애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

고루한 건 가차 없이 외면당한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무장한 거침없는 ‘앰 네이티브’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이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새로운 세대는 반드시 찾아오고 이전 세대는 사라지게 된다. 누구나 기성세대가 된다.

기성세대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있다.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던 시대는 없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씹고 다니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의 기성세대도 버릇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세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달라짐을 의미한다. 다름과 틀림은 구분되어야 한다. 다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세대 간 갈등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남아 있는 젊은이들과도 선뜻 대화하기 어렵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믿음의 특징은 이어지는 것이다. 좋은 믿음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싶다면 새로운 세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90년생의 특징
1. 간단하다 2. 재미있다 3. 정직하다

임흥택의 《90년생이 온다》는 새로운 세대로 분류되는 90년생의 특징을 잘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은 90년생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한다.

- 1. 간단하다.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째 키워드는 ‘간단함’이다. 90년대생들의 언어 습관에서는 축약형 은어인 ‘졸임말’이 자주 나타난다. 졸임말은 단순히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넘어 전체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 졸임말을 배우고 익히는 시대가 되었다.”

2. 재미있다.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재미’다. 80년대생 이전의 세대들이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들은 ‘삶의 유희’를 추구한다. 문화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미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승전병’이다. 기승전병이란 기승전결(起承轉結)에 ‘병맛’이라는 신조어가 결합된 또 다른 신조어다. 병맛이란 대체로 어떤 대상이 ‘백과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보는 시각과, 1980년까지는 비범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가 공감을 얻어냈다면 2000년 이후는 패배의식을 지닌 청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개념이 공감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3. 정직하다. “90년대생을 대표하는 마지막 특징은 ‘정직함’이다.” 90년생들은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한다. 혈연, 지연, 학연을 일종의 적폐로 여긴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90년생들은 공개 채용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직하게 노력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90년대생들에게 이제 정직함과 신뢰는 말로써 약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신뢰의 시스템화’를 원한다. 90년대생들은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슈 제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자신의 의견 전달에 거침 없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도 담겨 시대에 맞게 전달 방식 바뀌어

90년대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거침이 없다. 이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봉급

야 한다. 소통을 원한다면 진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가 쓰레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은 죽도록 시키고 쓰다 버리죠. 우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사장과 끈대 선배들이 널려 있는데, 3년간 초봉 좀 올려준다고 누구 중소기업을 지원하나요?”

이 말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다. 새로운 세대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불신은 불행한 결말을 만든다. 불신은 세대간 단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는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했다. 하지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어쩌면 르호보암과 원로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지는 않았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경험을 신뢰했다면 어떤 결말이 나왔을지 궁금하다.

채원국 효양학원 이사장은 오늘 날이 ‘먼저 안 게 오류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농경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혜보다는 노력의 덩어리가 될 염려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험이 다 고정 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시대이다. 먼저 안 건 전부 오류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성세대의 모든 경험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달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형해

야 한다. 소통을 원한다면 진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구인광고에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 회사는 기피 대상 1호라고 한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풀어 말하면, 가족같이 홀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족이기에 마땅히 희생을 강요한다. 진심 없는 상투적 문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진심이 필요하다.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은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성공 비결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마윈은 알리바바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2013년 CEO자리를 내려놓았다. 또한 각종 인사 제도를 통해 소통과 수평적인 문화를 장려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며 임원진의 연령대를 30~40대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은 믿음과 신뢰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신뢰를 보여줄 것을 원한다. 신뢰가 무너지 조직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긴다.

신뢰가 없는 기성세대의 경험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뢰를 상실한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한 기성세대를 ‘어른’으로 대우해준다.

신앙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게 물려줄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방법은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서혜부 통증(사타구니),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옆구리 통증(염통), 10일 이상 자궁출혈,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오심, 구역, 뇌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각종 위장병, 불면증, 홑꺼풀, 불안초조, 식은땀,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중 수술 안해도,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구원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오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정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Cl	바다염 (Na)
칼륨 K: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Cl	
마그네슘 Mg: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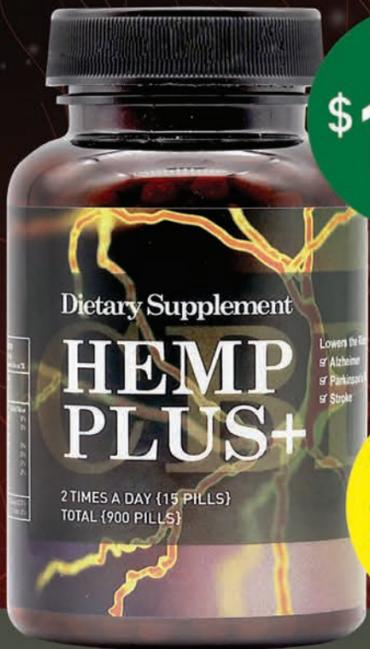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